

# 7년 전 유망주 김하성, '메이저리그 진출' 이제는 어엿한 빅리거

프로데뷔 7년만에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계약

국제대회 출전 1군 등록일수 혜택 받아 자격 갖춰

김하성(25·키움 히어로즈)이 미국 메이저리그행을 예약했다.

미국 디에슬레틱의 데니스 린은 29일(한국시간) 자신의 SNS를 통해 "김하성이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계약에 합의했다"고 알렸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닷컴 등 현지 매체들도 앞다퉀 김하성과 샌디에이고의 계약 합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

김하성이 샌디에이고행을 확정 짓게 된다면 KBO리그에서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는 역대 5번째 선수가 된다.

프로데뷔 7년 만에 이뤄낸 '빅리거의 꿈'이다.

김하성은 2014년 넥센(현 키움) 2차 3라운드 29순위로 프로에 첫발을 내디뎠다.

김하성이 입단했을 때 넥센의 유격수 자리는 강정호가 지키고 있었다.

김하성은 입단 첫 해 백업 내야수이자 대주자 요원으로 60경기에서 타율 0.188(48타수 9안타) 2홈런 7타점 17득점 4도루를 기록했다.

강정호가 2014시즌 뒤 메이저리그 도전을 염두에 두고 있을 때까지만 해도 김하성을 차기 주전 유격수로 점찍고 있었다. 팀을 이끌고 있던 염경엽 감독과 홍원기 수비 코치는 김하성의 수비 지도에 더욱 공을 들이기로 했다.

강정호가 빅리거로 향하면서 김하성은 2015시즌부터 팀의 유격수 자리를 꿰차다. 일찍 찾아온 온 기회를 실력으로 확실하게 붙들었다.

그해 김하성은 140경기에서 타율 0.290, 19홈런 73타점 89득점 22도루의 성적을 냈다. 아쉽게 신인왕 수상에는 실패했지만 '될성부른 떡잎'에 대한 인상은 확실히 각인시켰다.

웨이트트레이닝 등을 통해 파워를 더 키우고, 1군 경험까지 쌓인 김하성

는 계속해서 성장했다.

2016년에는 20홈런 28도루를 수확, 호타준족의 상징인 20홈런-20도루 클럽에 가입했다. 2017년에는 타율 0.302, 23홈런 114타점으로 첫 3할 타율을 넘어섰다.

김하성은 계속해서 정상급 유격수 자리를 지켰다. 젊은 나이의 선수답게 매년 더 발전한다는 평가도 받았다.

2018년에는 타율 0.288, 20홈런 84타점 95득점의 성적으로 데뷔 첫 골든글러브를 수상했다. 2019년에도 타율 0.307, 19홈런 104타점 112득점 33도루를 올리며 골든글러브를 지켰다.

2019시즌을 앞두고 메이저리그를 향한 진지한 꿈을 드러낸 김하성은 2020시즌에도 압도적 존재감을 드러냈다.

유격수가 주 포지션인 외국인 선수 에디슨 러셀이 시즌 중 합류하면서 3루와 유격수를 오가야 하는 상황에서 화끈한 방망이를 선보이며 타율 0.306, 30홈런 109타점 111득점 23도루로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날렸다.

KBO리그 통산 성적은 타율 0.294,

133홈런 575타점 606득점 134도루.

2017년부터는 국제대회마다 태극마크를 달고 있다. 2017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2017 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APBC)에 참가했고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는 금메달 획득에 앞장섰다. 지난해 열린 2019 WBSC 프리미어12에도 나서 주전 유격수로 활약했다.

김하성은 2020시즌을 끝으로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연한(7년)을 채웠다. 데뷔 시즌 1군 등록일수 부족하지만 국제대회 출전으로 1군 등록일수 혜택을 받아 자격을 갖췄다.

그리고 지난달 말, 소속팀 키움을 통해 메이저리그 포스팅 공시를 요청하며 꿈을 향한 본격적인 도전에 나섰다.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텍사스 레인저스, 보스턴 레드삭스, 뉴욕 메츠 등도 김하성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하성은 내셔널리그 서부 지구에 속해 있는 샌디에이고 유니폼을 입고 새로운 꿈을 펼칠 전망이다.

서선욱기자



## 손흥민, 올해 마지막 경기에서 '아홉수' 넘는다

내일 풀럼전서 토트넘 이적 후 통산 100호골 도전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토트넘)이 올해 마지막 경기에서 '아홉수' 탈출과 함께 토트넘 통산 100호골에 다시 도전한다.

토트넘은 오는 31일 오전 3시(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풀럼을 상대로 2020~2021 EPL 16라운드를 치른다. 독일 분데스리가를 떠나 2015년 8월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손흥민은 공식 경기에서 99골을 기록 중이다. 100호골 도전에 나섰다. 최근 3경기 연속 점목으로 이번이 4번째 도전이다.

손흥민은 지난 17일 리버풀과의 13라운드 골을 마지막으로 이후 리그 2경기과 리그컵(카라바오컵) 8강전에서 모두 침묵했다.

스토크 시티와의 리그컵 8강전에서 골을 넣었지만 석연찮은 오프사이드 판정으로 100호골을 놓친 장면이 아쉬웠다.

손흥민은 시즌 초반 무서운 페이스를 과시했지만 최근 6경기에서 1골로 주춤한 모습이다. 울버햄튼과의 15라운드에선 슈팅 1개에 만족했다. 상대의 견제가 견고해졌고, 백백한 일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뉴스

영국 '이브닝스탠다드'는 울버햄튼전 이후 "손흥민이 최근 조용한 슬럼프를 겪고 있다"며 "재중전이 필요해 보인다. 10~11월 상대 수비수를 공포에 질리게 했던 공간 침투가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조세 무리뉴 토트넘 감독의 수비적인 전술도 공격 밸런스에 영향을 끼쳤다. 리버풀 출신 레전드 스트리커 맥나마란은 EPL 홈페이지를 통해 "손흥민과 케인이 (수비적으로) 너무 깊숙이 내려서서 압박 놀랐다"고 지적했다.

또 영국 '토크스포츠'는 토트넘의 부진을 지적하며 "토트넘이 손흥민과 해리 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둘은 토트넘이 리그에서 넣은 26골 중 20골을 합작했다. 손흥민은 11골(4도움)을 넣으면서 득점부문 공동 2위에 자리하고 있다. 케인은 9골 10도움을 기록 중이다.

토트넘은 최근 리그 4경기에서 2무2패로 승리가 없다. 개막전 패배 이후 11경기에서 무패 행진(7승4무)을 달리며 선두권을 유지했지만 7위까지 밀려났다.

손흥민과 팀 모두에게 풀럼전을 통한 반전이 절실하다.

16라운드 상대 풀럼은 20개 구단 중 18위에 머물러 있는 약체로 객관적인 전력에서 토트넘보다 한 수 아래다.

뉴스

## 호날두, 메시 제치고 글로벌 사커 어워즈 '21세기 최고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가 27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두바이 글로벌 사커 어워즈'에서 '21세기 최고 선수상'을 받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5·유벤투스)가 세기의 라이벌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를 제치고 21세기 최고의 선수로 뽑혔다.

호날두는 28일(한국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글로벌 사커 어워즈에서 21세기 최고 선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상은 2010년 제정돼 매년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와 감독 등을 선정해왔다.

올해는 특별히 21세기 최고의 선수와 감독, 클럽 등을 별도 시상했고, 주인공으로 호날두가 선정됐다.

21세기 최고 선수 후보에는 호날두를 비롯해 메시, 모하메드 살라(리버

풀), 은퇴한 호나우지뉴 등이 올랐으나, 최종적으로 호날두가 수상자로 뽑혔다.

포르투갈 출신의 호날두는 스포팅 리스본(포르투갈)에서 프로 데뷔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 레알 마드리드(스페인), 유벤투스(스페인) 등에서 뛰며 총 7차례 리그 우승과 5차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했다.

또 2016년 유럽선수권대회에서 조국 포르투갈을 정상에 올려놓았다.

호날두는 "팀과 코치진, 구단의 도움이 없었다면 최고의 자리를 유지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21세기 최고 감독은 맨체스터 시티(잉글랜드) 감독이, 최고의 클럽은 스페인 명문 레알 마드리드가 선정됐다.

2020년 올해의 선수상은 바이에른 뮌헨(독일)의 2019~2020시즌 트레블(3관왕)을 이끈 로베르트 레만도프스키가 받았다.

레만도프스키는 앞서 UEFA 올해의 선수상과 국제축구연맹(FIFA) 올해의 선수상에 이어 이번 수상까지 3관왕에 올랐다. 올해의 감독상은 뮌헨의 한지 플릭 감독이 뽑혔다.

뉴스

## 메시, 바르셀로나와 결별 시사?...“언젠가는 미국에서”

“시즌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가 소속팀 FC바르셀로나(스페인)를 떠날 가능성을 제차 시사했다.

영국 BBC는 29일(한국시간) "메시가 스페인 방송 '라섹스타'를 통해 이번 시즌이 끝나고 바르셀로나를 떠나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전했다"고 전했다.

메시는 이 자리에서 "시즌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면서 "미국에서 뛰면서 거기의 삶과 리그를 경험하고 싶다. 아직 무엇을 할지 모르겠다. 나중에 여력이 되면 바르셀로나에 돌아오고 싶은 마음도 있다"고 했다.

시즌을 앞두고 사실상 바르셀로나와 결별을 선언했기에 이번 발언에 관심이 쏠린다.

메시는 시즌 직전까지 구단과 마찰을 빚다가 계약 만료인 내년 6월30일까지 바르셀로나에 남기로 했다.

보스만 룰로 인해 내년 1월1일부터

타 팀과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면서 그의 행보에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축구의 보스만 룰은 계약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은 선수가 자유롭게 다른 구단 이적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정을 말한다. 이 경우 원 소속팀은 이적료를 받지 못한다.

메시와 불편한 관계에 있던 바르토메우 바르셀로나 회장이 지난 10월 사임하면서 급한 불은 꺼지만 완벽한 봉합을 의미하진 않는다.

메시는 13살 때, 바르셀로나 유스팀에 입단해 현재까지 한 팀에서만 뛰었다.

2004~2005시즌 1군에 데뷔해 17시즌 동안 통산 644골을 터뜨렸고, 바르셀로나에 리그 10회, 스페인 국왕컵 6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4회 우승을 안겼다.

메시의 다음 행선지로 파리 생제르



FC바르셀로나의 리오넬 메시가 라리가 득점왕에게 수여하는 피치치를 받았다. (캡처=스페인 마르카 홈페이지)

맹(프랑스), 맨체스터 시티(잉글랜드)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메시의 미국행의지 발언이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

뉴스

## 새해 첫 흥국생명-GS칼텍스전, 지상파 중계

오후 4시→오후 12시25분 시작 시간 변경



프로배구 여자부 흥행카드도 자리 매김한 흥국생명과 GS칼텍스의 새해

첫 격돌이 지상파로 팬들을 찾아가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내년 1월3일 두 팀의 4라운드 맞대결 중계방송사가 KBS2로 변경됐다고 전했다.

KBS2가 V-리그 중계에 나서지는 것은 지난 10월24일 흥국생명-KGC인삼공사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다.

프로배구 중계방송사인 KBS는 그동안 광고가 붙지 않는 KBS1에 지상파 중계를 편성했지만 최근 배구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KBS2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경기 시작 시간은 중계방송사 사정에 맞춰 오후 4시에서 오후 12시25분으로 바뀌었다.

김미희기자